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36호 【무게 제25745호】 주제 106 (2017)년 8월 24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 령도의 첫 자욱을 세기신 57돛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었다.

반제민족해방투쟁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 국제사회가 열렬히 격찬

항일의 혈전야를 헤쳐서 조국해방의 역사적업무를 이룩하고 세계반제민족해방투쟁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2017년 백두산위인정상대회 스위스준비위원회,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제사상연구소 조는 다음과 같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8월 15일은 조선해방 72돛이 되는 날이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께서는 1932년 4월 만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시며 1945년 8월 15일 조국해방위업을 성취하시였다. 조선의 해방은 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싸우는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적임을 안겨주었다. 세계 진보적인인들은 조선해방을 안이오신 김일성주적을 열렬히 옹호하고있다. 주석의 부강조국건설철원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자나깨나 땀과 땀은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각별한 은정과 배려 속에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겨 웃음은 나날을 보낸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 성원들은 조국을 떠나기에 앞서 꿈에도 그리운 원수님을 위하여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올립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과 민족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선군혁명명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며 총련합회일군들을 조국에 불러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고있습니다. 조국세류기간 저희들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발악적인 탄압과국제제국주의세력에서도 세계의 최강국으로 우뚝 솟아오른 조국의 모습과 최후승리의 화선에 넘쳐있는 조국인민들을 직접 보면서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을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깊이 가다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함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유대관, 미제관을 감명있게 보여주는 가슴뜨거운 회록들, 우리 조국을 주체의 혁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높여 줄 것임이 믿어지신 우리 원수님의 불멸의 령도적지침에 대해 보고 들으셔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회주의강국건설철원을 현실로 불러주시는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민족의 어버이로 높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자》발표 1돛기념

연 구 토 론 회 진 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자》발표 1돛 기념 연구토론회가 23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의 부위원장인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와 관계부, 청년동맹일군들, 평양시인의 청년학생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 제9차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인 연설에 담겨진 사상리론의 정당성, 과학성에 대하여서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바탕으로 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깊이있게 세심론증한 본론들이 발표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동맹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전 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 화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우리 혁명과 청년운동발전의 성숙된 요구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청년동맹이 불고나가야 할 전투적지침이라는 제목으로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가 토론하였다. 토론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역사적로작은 세상에 들도 없는 청년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하고 길이 빛내이며 청년동맹을 명실공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진로를 밝힌 강령적지침으로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청년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김정일시대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의 청년운동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거나 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되기때문이다.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청년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훈련시키며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혁명사상만이 딱 들어맞는 사상순결체로 우리 조국 청년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청년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영웅청년의 명예를 빛내여나가도록 하는것은 청년동맹앞에 내서는 중요한 과업》이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청년전위선분사 책임주필 최순철은 이렇게 해설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운동사상과 리론을 발전시켜주시어 청년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앞장세워 내세우려 대한 새로운 사상리론을 내놓으신것은 주체의 청년운동 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게 사변이다.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속 완수해나가야 하는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지닌 청년동맹과 청년들이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여야 약속하는 믿음으로 비약하는 때다산청년강국의 기상을 남김없이 파시내나갈수 있다.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청년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 훈련시키며 그들이 당의 전투적후비대, 우리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하는것은 현재서 청년동맹조직들앞에 내서는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된다. 모든 청년들은 사회주의수호전과 경제강국, 과학기술강국, 문명강국건설의 앞장에서 영웅청년의 슬기와 용량을 남김없이 펼침으로써 혁명의 주력군, 혁명의 계승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야 한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서 박철민은 《청년동맹조직들을 강화하고 그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바탕으로 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동맹원들속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조직생활과정이 청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단련시키는 청년혁명학교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역사적인 로작에서 제시하신 사상리론을 깊이 연구체득하며 청년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앞장서서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줄은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